

# 최소 집단 상황에서의 집단간 차별: 평가적 차별, 동질성 차별, 언어적 차별과 집단 동질성과 집단간 차별과의 관계\*

이 종 숙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집단간 차별에서 연구된 다양한 종속변인 즉, 집단 구성원의 특정 특성의 소지 백분율, 특정 특성에 대한 집단의 평균과 변산성, 그리고 언어적 집단간 차별 변인에서, 집단 간 차별이 일어나는지, 또한 이들 집단 간 차별은 긍정성과 부정성에서 불균형적으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들 변인들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집단 구성원의 특정 특성의 소지 백분율에서, 또 특성의 평균, 언어적 진술에서 집단간 차별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간의 변산성 지각에서는 차별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 집단간 차별이 일어난 변인들에 대한 사후 평균 검증에서는, 백분율과 같은 직접적 차별 변인에서는 긍정성-부정성 불균형성이 일어났으나, 평균과 언어적 차별 같은 간접적 변인에서는 긍정성에서는 집단간 차별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성에서 더 집단간 차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규범 가설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고 논의되었다. 즉 사회규범적으로 차별이 인정되는 긍정성에서의 차별은 직접적 변인에서도 나타나나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정성에서의 차별은 간접적인 변인에서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종속 변인들 간의 관계는 직선적, 곡선적 관계 모두 가설에서 예측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 서 론

### 직접적-간접적(explicit-implicit) 집단간 차별

다양한 집단간 차별에 대한 연구들을 고찰해보면 집단간 차별은 내-외 집단에 대한 분배에서나 내-외집단에 대한 평가와 같은 차별이 분명하게 외적으로 표명되는 측면에 대해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Billig & Tajfel, 1973; Brown, Tajfel & Turner, 1980; Tajfel, 1978; Tajfel & Turner, 1986), 집단의 동질성을 평가하는 연구

에서나(Judd & Park, 1988; Judd, Ryan & Park, 1991; Linville, Fischer & Salovey, 1989; Linville, Fischer, & Yoon, 1996; Park & Judd, 1990), 집단에 대한 언어적 진술과 같은 걸으로는 집단 간 차별을 드러내는 것 같지 않은 간접적 측면에 대한 연구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aas, Salvi, Arcuri, & Semin, 1989; Maas, Milesi, Zabbini & Stahlberg, 1995).

집단간 차별에 대한 종속변인들은 차별을 외적으로 분명히 들어내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들어, 집단

\* 본 연구는 1999학년도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의 구성원이 긍정적 특성이나 부정적 특성을 가졌는지를 백분율로 평가하는 것과 그러한 긍정적-부정적 특성에 대한 분포를 만드는 것과 언어적으로 긍정적-부정적 특성을 얼마나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하는가는 집단간 차별을 분명하게 들어내는 측면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들어내고 명백하게 하는 차별을 직접적 차별이라고 본다면 은연 중에 함축적으로 하는 차별은 간접적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의 집단간 차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집단의 구성원에게 금전이나 물품, 또는 상징적 점수를 분배하는 행동에서 나타나는 내-외집단의 분배의 차별이나 내-외집단의 특성을 평가하는 행동에서 내집단을 외집단보다 더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직접적 차별을 측정하였다.(Billig & Tajfel, 1973; Brown, Tajfel & Turner, 1980; Tajfel, 1978; Tajfel & Turner, 1986)

그러나 내-외집단의 차별에 대한 연구들은 집단간 차별이 이러한 분배나 평가 행동에서 뿐 아니라 외집단을 내집단보다 더 유사하고 동질적인 집단으로 지각하려는 경향성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집단 차별을 한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Judd & Park, 1988; Judd, Ryan, & Park, 1991; Linville, Fischer, & Yoon, 1996; Park & Judd, 1990). 이들 연구들에 의하면, 피험자들은 다양한 동질성을 측정하는 척도에서 내집단은 외집단보다 더 다양하고 이질적이며 외집단은 더 동질적이고 전형적인 것으로 지각하였으며, 연구자들은 이러한 동질성 지각의 차이는 집단간의 차이를 크게 보려고 하는 인지적 경향성 때문에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동질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된 도구들은 다양한데, 내-외집단으로 구분되는 상황에서 집단 구성원들의 어느 정도가 그 집단의 전형적 특성을 나타내고 또 어느 정도가 그 집단의 비전형적 특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차이로 집단의 동질성 지각을 측정하기도 하고, 이 집단의 분포를 대략적으로 표현하도록 하고 그 분포의 변산성(표준편차와 범위) 등으로 동질성을 측정하였다(Judd, Ryan, & Park, 1991; Park & Judd, 1990). 또 다른 연구자들은 집단의 특성들간의 공변량의 정도 등을 측정하여, 각 집단에 대한 동질성 지각을 평가하였다(Linville, Fischer, & Yoon, 1996).

이들 동질성 지각의 척도는 집단 구분 상황에서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피험자들의 인식을 반영하지만, 연구자들은 외집단에 대한 동질성 지각은 내집단을 유익하게 대우하고자 하는 내집단 방어적 집단간 차별과는 독립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을 내-외집단으로 구분하면, 외집단을 보다 더 동질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것이 내집단 방어적 집단간 차별과 완전히 독립적인지 아니면 집단간 차별을 하려는 다른 하나의 양식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다른 하나의 간접적인 집단간 차별 현상은 사람들의 언어적 표현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집단구분으로 내-외집단 간의 언어적 차별이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Maas, Salvi, Arcuri, & Semin, 1989). 이 연구에 의하면 집단을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하여 지각하도록 하면 내-외집단의 지각에서 내집단의 긍정적 특성은 더 일반적이며 추상적 특성으로 진술하려 하며 외집단의 긍정적 특성은 그 상황에만 특정하고 더 구체적인 행동으로 기술하려는 경향성이 있고, 부정적 특성에서는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Maas 등(1989)은 집단간 차별의 근간에 언어적 차별이 있음을 인식하고 Semin과 Fiedler(1988)의 분류에 기초한 언어적 표현과 집단간 차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Maas 등(1989)의 연구에서는 palio라 불리는 경마 경기에서 한 도시 내에서 지역간의 경쟁을 벌이는 집단들 간의 차별을 연구하였다. 이 지방에서는 지역간에 이미 오랜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경쟁이 더 현저하게 나타나도록, 경기가 있기 바로 전날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긍정적 특성에 대해서는 내집단을 더 추상적 용어로 외집단을 더 구체적 용어로 기술한 반면 부정적 특성에 대해서는 내집단을 더 구체적 용어로 외집단을 더 추상적 용어로 진술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들 Maas 등(1989)이 사용한 언어의 분류체계는 Semin과 Fiedler(1988)에 의해서 개발된 것인데, 이들은 우리가 어떤 사태를 언어화하는 데에 자신의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즉 어떤 사태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어휘를 사용해서 기술하여 그 어휘의 해석을 더 일반화하거나 다른 사태와 연관하여 추정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반하여 어떤 사태는

아주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좀 더 폭넓은 특성으로의 유추나 일반화가 가능하도록 묘사한다. Semin과 Fiedler(1988)는 이러한 어휘의 종류를 4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가장 구체적 수준으로 기술적 행동 동사(DAV)가 있으며, 그 다음 수준의 구체성을 띠는 동사로는 해석적 행동 동사(IAV)가 있으며, 그 다음 수준은 상태동사(SV)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가장 적은 구체성을 띠며 가장 많은 추상성을 띠는 어휘로 형용사(Adj)가 있다고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동일한 상황을 보고도 사람들은 그 상황을 "A가 B에게 말하고 있다(DAV)"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A가 B를 도와주고 있다(IAV)"라고 말할 수도 있고 "A가 B를 좋아한다(SV)"라고 할 수도 있고 "A는 외향적인 사람이다(ADJ)"라고 말할 수도 있다. 기술적 동사는 그 상황을 상세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며, 지속성이 짧고, 해석적 동사는 동일한 상황에 해석적 의미를 부여한 어휘를 사용하여 표현하나 상태동사보다는 그 행동의 시작과 끝이 분명하며, 상태동사는 그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며 구체적 행동으로 증명되거나 가시적이지 않고 보는 사람에 의해 추론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동사를 의미하며, 형용사는 추상적으로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어휘로 사용될 수 있다. Semin과 Fiedler(1988)가 제시하는 각각의 수준에 맞는 예시 단어들을 살펴보면, 기술적 동사로는 "잡다, 방문하다, 전화걸다" 등이 이 수준에 속하며, 해석동사에는 "격려하다, 오도하다, 속이다, 아침하다" 등이 이 수준에 속하고, 상태동사에는 "사랑하다, 존경하다, 중요하다, 신뢰하다" 등이 이 수준에 속하며, 마지막 형용사 수준에는 다양한 형용사가 있다. Semin과 Fiedler(1988)는 이러한 어휘의 추상성을 구분하는 준거로 주체(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성, 지속성, 검증가능성, 논박가능성, 상황에 대한 정보성이라고 규정하고, 각각 다른 정도의 추상성을 가진 어휘들은 이들 준거 차원에서 피험자들에 의해서 의미 있게 다르게 평가됨을 증명하였다.

Maas 등(1989)은 이러한 언어적 분류체계를 사용하여 피험자들이 기술한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진술문을 분석한 결과, 피험자들은 내집단의 긍정적 특성은 더 추상적 용어로 부정적 특성은 더 구체적 용어로 설명하는 반면 외집단에 대해서는 그 반대로 진술하였다

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Maas, Milesi, Zabbini와 Stahlberg의 연구(1995)에서는 이러한 언어적 차별이 내집단 방어적 욕구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전형성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일어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Mass 등의 연구(1989)에서는 전형적 집단 구분 상황에서 언어적 차별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전형적 내의 집단에는 전형성에 대한 기대와 집단간 차별을 하려는 동기가 혼입되어(confounding) 있기 때문이다. Mass 등(1995)의 연구에서는, 전형성에 대한 기대와 내외집단 간의 차별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두 현상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집단 구성원의 특성을 묘사하는 용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더 전형적인 특성은 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용어로 기술하는 반면 비전형적인 특성은 더 특수하고 구체적인 용어로 기술하는 집단의 전형성에 대한 기대에 따른 차별적 언어사용은 나타났으나, 내집단의 긍정적 특성은 더 추상적 일반적 용어로 내집단의 부정적 특성은 더 구체적이고 특수한 용어로 설명하며 외집단에 대해서는 그 반대의 용어들을 선택한다는 집단간 차별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집단에 대한 동질성 지각의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내집단을 위한 방어적 차별과 집단에 대한 언어적 차별은 무관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 최소집단 상황에서의 집단간 차별 연구의 필요성

Maas 등(1995)의 연구에서 전형성은 더 추상적으로 비전형성은 더 구체적 용어로 표현하는 경향은 그러한 행동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는데, 기대 뿐만 아니라 전형적 특성이 대체로 추상적 용어로 묘사되어 있으므로 전형적 행동을 진술할 때는 자동적으로 이러한 전형화된 상투적 용어를 사용하게 되니까 가장 추상적 용어로 진술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투적인 전형성을 사용함으로써 언어적 집단간 차별 현상이 사라졌다고 설명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집단간의 언어적 차별을 측정하기 위해 너무 고정 관념화된 전형적 특성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

Maas 등(1995)의 연구 뿐 아니라 많은 집단간의 차

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이미 형성된 내-외집단에서 각 집단의 고정 관념적 특성들이 각 집단의 특성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연구되었다. 이들 각 집단들은 오래된 전통적 고정 관념들을 가지고 있으며 집단간 차별도 이러한 전형적 특성에 대해서 연구되었다. Linville 등(1989, 1996)의 연구에서는 청년과 노인 집단간의 차별과 여성과 남성간의 차별을 연구하였고 Park와 Judd(1990)와 Judd, Ryan과 Park(1991) 연구에서는 전공학파나 성별 차이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Maas 등(1995)은 이탈리아의 지역간의 특성에서의 차별을 연구하였고 이종숙(1996, 1997)은 남녀공학 대학과 여자대학의 여대생에 대한 전형적 특성과 전공 학과의 전형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이미 형성된 전형적 집단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 연구들이 선정된 집단들이 얼마나 고정 관념화된 집단들이었는가에 따라 그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들 연구들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특성의 전형성의 정도의 차이 때문에 연구결과가 달라질 뿐 아니라 집단이 전형성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연구 결과가 상당히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Park와 Judd(1990)의 연구나 Linville 등(1996)의 연구에서는 여성과 남성간의 집단간 차별이나 청년과 노인간의 또는 전공간의 집단간 차별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이들 연구에서 사용된 집단들은 아주 전형적 특성이 확립된 집단들이었고, 이들 집단의 한 두 가지의 전형적 특성에 대해서만 연구하였다. 그 결과 집단의 동질성 지각에서 내-외집단 간의 차별이 일어나 내집단은 이질적이고 외집단은 더 동질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외집단 동질성 지각은 집단간 차별 즉 내집단을 더 이롭게 외집단에 대해서 더 해롭게 하려는 내집단 방어적 차별과는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물론 양쪽 집단 모두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하여 동일한 특성을 평가하였으므로 내-외집단 간 특성의 전형성의 차이나 피험자의 전형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어느 정도는 통제해 주지만 어느 한 집단이 아주 심하게 내집단을 위한 차별을 하였다면 다른 집단은 차별하지 않거나 외집단을 위한 차별을 하였어도 내-외집단간 동질성 추정에서 차별은 나타난다.

예를 들어, Park와 Judd(1990)의 연구 결과에서, 남성과 여성간에 외집단의 동질성을 지각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외집단의 동질성을 더 큰 것으로 지각하는데 이는 이 특정 전형성에 대한 남녀간의 성차별적 고정관념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만약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외집단 동질성 지각을 검증하였다면 그 결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집단의 구성원들의 집단 정체성이 다르면 집단간 차별 현상이 역전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다. 이종숙(1997)의 연구에서는 여대생들을 여자대학의 여대생과 남녀공학 대학의 여대생 집단으로 구분하고 내외집단에 대한 차별적 지각 현상을 연구하였는데 이러한 집단 구분에서는 집단간 차별 현상이나 집단의 동질성 지각에서의 내외집단간 차별이 Park와 Judd(1990)의 연구와는 반대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연구에서는, Park와 Judd(1990)의 연구에서처럼, 동질성의 정도를 여자대학과 남녀공학 대학의 여대생집단의 전형적 특성과 비전형적 특성에서의 동질성을 측정하였는데, 내집단은 더 동질적인 집단으로 외집단은 더 이질적인 집단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에서 언급한 다른 연구들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을 뿐 아니라 집단간 차별에서도 외집단을 위한 역차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동질성 지각과 집단간 차별에서 모두 기존의 연구들과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집단의 동질성과 집단간 차별과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역차별 현상이 일어난 것을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 긍정적 정체감이 확립되지 않았고 집단에 대한 친숙성이 없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는데 정체감이나 친숙성의 정도도 이러한 연구 맥락에서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변인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들을 살펴 볼 때, 집단간 차별을 연구하기 위해 기존의 형성된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집단의 전형성의 정도 뿐 아니라 집단에 대한 동일시의 정도, 집단 정체성의 성격, 친숙성의 정도, 또 그 집단에의 소속원으로서의 안정성 등 다양한 변인들이 집단간 차별의 정도를 결정하는 주요 변인이 되므로 이들 변인들을 반드시 고려하여 이러한 변인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 집단들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최소 집단 실험 패러다임은 집단의 동질성 지각이나 집단간 차별을 연구하는 기초 실험 설계로 적합하며, 집단이 전형화되기 이전의 집단간 차별을 연구할 수 있는 집단 구분 상황이다.

최소집단 상황은 집단 구분 준거가 무엇이라고 알려주었던 간에 상관없이 실제로는 무선적으로 집단 구분하거나 집단 구분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새로 형성된 집단은 그 성격이 상당히 불분명하다. 그러므로 최소 집단 상황에서는 집단에 대한 선입견이 없기 때문에 집단의 전형성의 정도의 차이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집단 구분은 집단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당한 불확실성을 느끼도록 한다. Grieve와 Hogg (1999)는 어떤 집단에 속했다는 것만 알려주고 그 집단의 성격을 확실히 알 수 없을 때 피험자들은 집단의 성격에 대한 강한 불확실성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욕구가 집단간 차별을 일으킨다고 가정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최소집단 구분 상황에서 집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집단간 차별을 일으키며 불확실성의 해소 욕구의 감소가 집단간 차별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최소 집단 상황에서는 모든 피험자들이 불확실성을 느끼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과제를 한 집단과 그러한 과제를 하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간 차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던 집단은 집단간 차별을 하지 않은데 비하여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한 집단은 집단간 차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최소집단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간 차별을 하려는 욕구가 더 일어나리라 기대되기 때문에, Park와 Judd(1990)의 연구에서나 Maas 등의 연구(1995)에서 검증할 수 없었던 집단간 차별 현상을 더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집단간 차별에서의 긍정성-부정성의 불균형성

한편 내-외집단간의 평가적 차별에서 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특성에 대해 동일하지 않은 차별 현상을 나타내 보인다는 연구들이 있다. 집단간 차별을 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특성에서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집단간 차별은 긍정적 특성에서는 내집단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외

집단을 덜 긍정적으로 평가하려 하는 반면 부정적 특성의 평가에서는 이러한 차별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집단간 차별에서의 긍정성과 부정성에서의 불균형성(asymmetry)에 대해서는 Blanz, Mummendey와 Otten(1995)과 Wenzel과 Mummendey (1996)의 연구에서 검증되었는데 Blanz 등(1995)의 연구에서는 과제에서의 수행 결과에 의해서 집단구분을 한다고 설명한 후 실제로는 무선적으로 집단구분을 한 최소 집단 상황에서 긍정적 특성에 대해서는 집단 차별이 일어난 반면 부정적 특성에서는 집단간 차별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부정성에서 집단간 차별이 일어나는 경우는 강한 정체성에 대한 위협이 있을 때임을 검증하였다. Wenzel과 Mummendey (1996)의 연구에서도 긍정성과 부정성의 불균형성이 검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평가하는 긍정성과 부정성을 제시할 때, 두 가지 특성을 같이 제시한 집단 내 설계와 한 집단에게는 긍정성을, 다른 집단에게는 부정성을 평가하도록 한 집단간 설계의 차이를 검증하였는데 집단 내 설계에서는 긍정성과 부정성 불균형성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집단간 설계, 즉 순수하게 긍정성만 제시하거나 부정성만 제시한 경우에는 불균형성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연구자들은 사회적 규범과 인지적 정보처리과정에서의 부정성 효과를 들고 있는데 사회적 규범 가설에 의하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집단간 차별을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행동으로 평가되지 않지만 부정적 특성에서는 집단간 차별이 나쁜 행동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부정적 측면에서는 집단간 차별을 들어내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Franco & Maas, 1999). Franco와 Maass(1999)의 연구에서는 차별이 인정되는 집단에서는 직접적(explicit)차별과 간접적(implicit)차별이 상관이 높은 반면, 차별이 인정되지 않는 집단에서는 직접적 차별과 간접적 차별이 상관이 낮았다.

반면에 인지 정보처리적 관점의 설명에 의하면 부정적 정보는 긍정적 정보보다 정보처리에서 더 큰 비중을 가지는데 집단간 차별 상황에서도 긍정성보다 부정성은 좀 더 정교하고 자세한 정보처리를 하게 되며, 이러한 처리과정으로 인하여 부정성에서는 집단간 차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인지 정보처리의 관점이지만 Reynolds, Turner와 Haslam(2000)은 최소 집단 구분

상황에서 긍정성과 부정성의 불균형성이 일어나는 이유를 다르게 해석한다. 이들은 부정적 특성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특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종류 때문에 불균형성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즉 부정적 특성이 사회정체성 확립이나 자기 범주화에서 자신의 자기정의(self-definition)를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정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 간 차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만약 부정적 정보도 자신의 사회정체성이나 자기 범주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집단간 차별이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즉 평가하는 특성의 긍정성-부정성 차원이 아니라 관련성-비관련성 차원이 불균형성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 연구자들은 이미 형성된 전형성을 가진 기존의 집단을 사용하여 전형적이면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특성에 대한 평가에서의 집단간 차별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이들의 주장대로 전형적 특성들에서는 긍정성과 부정성 모두에서 집단간 차별이 나타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 연구의 문제점은 이 연구에서는 전형적 집단으로 일반 대학생과 기술대학(TAFE) 학생들을 대비되는 집단으로 사용하였는데, 내-외집단 간 차별을 연구하면서 양쪽 집단 구성원을 모두 피험자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대학 학생들만을 피험자로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부정성 불균형성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집단의 동질성 지각과 집단간 차별과의 관계

다양한 집단 구성에서 내외집단 간의 차별을 보여주는 연구들은 집단간 차별을 측정하는 종속 변인들을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분배나 평가일 수도 있고, 집단의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한 지각일 수도 있고, 집단 구성원을 설명하는 진술의 차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들에서는 이들 집단 차별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 변인들은 모두 각 각 다른 독립된 집단간 차별의 양식일 수도 있고 하나의 공통된 욕구에서 나오는 표현 방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인과 관계적 변인일 수도 있다.

Park와 Judd(1990)의 연구나 Judd 등(1991)의 연구들에서는 집단의 동질성과 집단간 차별은 독립적인 것으

로 밝혀졌는데 그렇다면 동질성 변인과 집단간 차별은 상관이 낮을 것으로 가정된다. 또 Maas 등(1995)의 연구에서는 집단간 차별과 무관하게 전형성에 대한 기대에 따라 언어적 추상성의 정도가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러한 집단간 차별 변인들 간의 관계를 실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Jetten, Spears와 Manstead(1996; 1998)의 연구들이다. 이들 연구자들의 처음 연구(Jetten 등, 1996)에서는 집단의 규범이 내외집단 간의 분배와 평가에서의 차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검증하였고 두번째 연구에서는(Jetten 등, 1998) 내외집단에 대한 동질성의 지각과 집단간 차별을 하는 행동은 곡선적 관계에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 가정의 근거는 집단간 차별에 대한 사회정체성 가설과 자기범주화 가설을 통합한 것이다. 이 연구자들은 사회정체성 이론에서는 집단 구분시 외집단을 차별하게 되는 것은 외집단이 내집단과 유사하면 자신의 집단 정체성이 위협받기 때문에 외집단을 차별하여 다르게 지각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외집단이 유사할수록 집단간 차별은 더 일어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자기-범주화이론에서는 자신을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다고 한다. 즉 자신이나 타인을 범주화할 때 범주 내에서의 차이는 최소화하려고 하고 범주간의 차이는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므로 이 이론에 의하면, 이미 집단간의 차이가 크다면 집단간 차별이 더 쉽게 일어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집단간의 유사성에 집단간 차별의 근거를 두는 사회정체성 이론과 집단간의 차이에 집단간 차별의 근거를 두는 자기범주화 이론은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결과를 예측하는 상반된 점이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들 두 이론적 설명이 모두 집단간 차별 현상을 설명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두 이론을 종합적으로 적용할 때 집단간 유사성과 집단간 차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들은 이 두 이론을 종합하면 두 집단간의 차이는 클수록 더 집단간 차별이 일어나지만 차이가 너무 커서 서로 비교의 차원이 전혀 없는 아주 이질적인 두 집단일 때도 집단간 차별은 일어나지 않으므로 집단의 차이와 집단간 차별은 곡선적 관계(도치된 U곡

선)를 이를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들은 집단의 본포에서 평균과 변산성은 집단의 차이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된다고 보았다.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큰 것은 집단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또 집단내의 변산성이 큰 것은 두 집단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 유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집단간의 평균차가 크고 집단의 변산성이 적으면 두 집단은 가장 차이가 큰 집단들이고, 집단간의 평균차가 적고 두 집단의 변산성이 크면 두 집단은 가장 차이가 없는 집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집단간의 차이가 가장 크거나 가장 적은 이 두 집단에서 가장 집단간 차별이 적게 일어날 것으로 가정하였다. Jetten 등(1998)은 집단내의 동질성 변인으로 집단의 변산성(범위)과 집단간의 동질성 변인으로 집단의 평균을 조작 제시하여, 피험자들로 하여금 각 집단들이 유사한 정도를 다르게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 집단간 유사성을 조작하기 위하여 사용한 변인들이 Judd와 Park(1988) 그리고 Park와 Judd(1990)의 연구들에서 사용된 집단 동질성 척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 연구는 Park와 Judd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된다고 볼 수 있다. Jetten 등(1998)의 연구 결과는 연구자들의 가설과 일치하게 집단의 동질성과 집단간 차별 간에는 곡선적(도치된 U 곡선의) 관계가 있음을 지지하였다.

#### 연구의 가설

이상 다양한 상황에서 연구된 집단간 차별에 대한 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집단간 차별을 일으키는 조건이나 상황에 대한 연구들의 결과는 변인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증하거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간 차별 현상을 일으키는 이들 변인들에 대하여 종합적 검토를 시도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를 위하여 최소 집단 상황과 같은 실험적 상황이 기존에 형성된 전형적 집단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 설명에 적합하리라 사료되어 기본 실험 상황을 최소 집단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첫째, 집단 간 차별에 대한 가설들과 둘째, 집단에 대한 동질성 지각과 집단간 차별의 관계를 포함하는 다양한

종속 변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들이다.

먼저 집단간 차별에 대한 가설들에서는 다양한 종속 변인들에서 집단간 차별이 일어나는지와 이러한 차별에 사회적 규범 가설(Franco & Maas, 1999)에서 주장된 것처럼 부정성 불균형성이 반영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즉 집단으로 구분을 하면 내집단을 더 좋게 평가하려 하고 외집단을 나쁘게 평가하려는 내집단 방어적 차별이 기본적으로 일어나지만 차별을 표현하는 종속 변인들이 얼마나 직접적이고 분명한지에 따라 긍정성과 부정성에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들을 설정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직접적 차별의 정도가 다른 세 종류 종속변인들을 사용하고자 한다. 첫번째 종속변인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제시된 긍정적-부정적 특성을 소지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이며, 두번째 종속 변인은 집단구성원들이 긍정적-부정적 특성에 대하여 실험 참여자들로 하여금 본포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 본포의 평균과 변산성이 어떠한가를 비교하는 것이고 세번째 종속 변인은 집단의 구성원의 행동을 묘사하는데 사용하는 언어의 구체성의 정도가 어떠한가이다.

첫번째 각 집단의 구성원들이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지에 대한 백분율을 추정하는 변인은 비교적 외현적 혹은 직접적으로 집단간 차별을 표현할 수 있는 변인이다. 긍정적 특성에 대하여 추정하는 백분율이 높다는 것은 그 집단을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부정적 특성에 대하여 추정하는 백분율이 높다는 것은 그 집단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변인은 Park와 Judd(1990) 그리고 이종숙(1997)에서 내집단 방어적 차별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변인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집단간 차별을 표현하는 변인에서는 다른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내집단을 좋게 평가하고 외집단을 나쁘게 평가하려는 집단간 차별이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 변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러한 직접적 집단간 차별에서는 Welzel과 Mummendey(1998)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부정성 불균형성이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 즉 긍정성에서는 내-외집단이 다르지만 부정성에서는 내-외집단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집단 간 차별만 할 것이라는 것이다.

두번째 이 연구에 포함된 종속변인은 분포를 만들어 보는 과제에서의 집단간 차별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 과제에서는 두 종류의 종속 변인이 측정될 수 있는데 평균과 변산성이다. 평균은 앞에서 논의한 백분율과 마찬가지로 집단간 차별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실험 참여자가 하여야 할 과제가 분포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백분율을 추정하는 것처럼 직접적이지는 않다. 집단의 분포를 만들기 위해 신경을 써야 하며 평균은 쉽게 계산되지 않으므로 자신이 차별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덜 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부정성 불균형성이 덜 나타나고 부정성에서도 어느 정도 집단간 차별을 할 것으로 추론된다.

다음 분포 만들기에서의 변산성도 집단간 차별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변인으로 보여진다. 이전의 연구들은(Judd, Ryan, & Park, 1991; Park & Judd, 1990) 집단의 동질성을 측정할 때, 특성을 긍정성과 부정성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지 않았다. 긍정성-부정성 관계없이 내집단을 더 다양하게 외집단을 더 동질적으로 지각한다고 주장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외집단 동질성 지각이 긍정성과 부정성에서 다르게 나타날 것인지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으며, 변산성도 간접적 표현 변인이므로 부정성 불균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인으로 언어적 차별을 측정하였다. 동일한 상황을 설명하는 언어적 진술에서, 좀 더 구체적 혹은 추상적으로 상황을 묘사할 수 있는데 내집단의 긍정적 특성은 더 추상적으로 부정적 특성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외집단의 특성에 대해서는 반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Maas 등, 1995). 그런데 이러한 언어적 차별은 겉으로 드러나게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표현되는 간접적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간접적 언어적 차별에서, 본 연구자가 특히 관심을 가지는 가설은 집단간 차별에서 부정성 불균형성이 나타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집단간 차별이 아니기 때문에 피험자들은 사회적 규범에 의한 억제될 덜 느낄 것이므로 부정성에서도 집단간 차별을 보일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다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집단간 차별을 하는 종속

변인들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검토하고자 한다. 즉 모든 종속 변인들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있는지를 검토하고, 집단의 동질성 지각과 집단간 차별간에는 곡선적(도치된 U곡선)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직선적 상관 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Jetten 등(1998)이 주장하였듯이 집단의 분포 구성에서 내집단과 외집단의 평균차가 크고 두 집단의 표준편차를 적게 보는 집단은 가장 내-외집단을 이질적으로 보는 집단이라고 가정할 수 있고, 내집단과 외집단의 평균차가 적고 두 집단의 표준편차를 크게 보는 집단이 내-외집단을 가장 동질적으로 보는 집단으로 가정해 볼 때, 이들 두 집단은 다른 두 집단보다 집단간 차별을 적게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볼 수 있다.

이상의 가설들을 요약한다면, 첫째, 사회적 규범 가설에서처럼 부정성 불균형성이 일어난다면, 집단의 특성의 소지 백분율과 같은 직접적 차별에서는 긍정성에서는 내집단의 백분율을 외집단의 백분율보다 더 높게 추정하지만 부정성에서는 외집단의 백분율을 내집단의 백분율보다 더 높게 추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집단간 차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정도가 미약한 분포의 평균과 같은 종속 변인에서는, 긍정성에서는 내집단의 평균을 외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부정성에서는 외집단의 평균을 내집단의 평균보다 더 높게 분포를 구성할 것이며, 변산성(표준편차)에서도 긍정성에서는 내집단이 더 동질적인 것으로 부정성에서는 외집단을 더 동질적인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셋째, 집단간 차별이 전혀 외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 언어적 차별에서도 긍정성에서는 내집단을 더 추상적인 용어로 부정성에서는 외집단을 더 추상적인 용어로 진술할 것이다. 넷째, 집단간 차별을 측정하는 다양한 척도들간에 어느 정도 직선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집단의 동질성 지각의 정도와 집단간 차별간에 곡선적(도치된 U곡선) 관계가 있을 것이다.

## 방 법

### 피험자

피험자는 D여자대학교 심리학개론 강의를 수강하는 여대생 1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조작 점검에서



자료 처리에 부적절하다고 밝혀진 2명을 제외하고 118 명이 대상이 되었다. 이들 수강학생들을 실험의 첫 시간에 점 추정 과제를 수행한 후 점 추정 과제의 결과에 의해 집단 구분하는 것처럼 피험자들에게는 알려주고, 실제로는 무선적으로 59명은 과다 추정자로 나머지 59명은 과소 추정자로 집단 구분하였다.

#### 연구 절차

**예비연구.** 예비연구를 위하여 D여자대학교 심리학과 3학년 학생 30명이 참여하였다. 이 예비연구에서는 사용하는 도구의 타당성을 위한 조사를 하었는데 언어적 집단간 차별을 알아보기 위하여 8장의 만화로 그려진 그림이 제시되었고 그 그림의 내용을 설명하는 다양한 설명문의 추상성-구체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 학생들에게는 Semin과 Fiedler(1988)의 언어적 분류체계를 설명하였고 그 설명에 의거하여 주어진 설명문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 예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 주어질 형용사들의 긍정성 부정성에 대한 평가도 실시되었다. 형용사들은 어떤 집단의 전형성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본연구.** 본 실험의 첫째 날에 학생들에게 점추정 과제를 실시하였다. 화면에 50-100개 정도의 점을 산포한 자료를 5초 동안 제시해주고 점의 개수를 추정하도록 하였다. 10개의 점추정 과제를 제시한 후 이 자료의 결과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자신의 지각적 추정 경향성을 알려줄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일주일 후 실시된 실험 두 번째 날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간단한 과제를 제시하는 소책자가 배부되었다. 소책자에는 연구대상을 무선적으로 과다추정집단과 과소추정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피험자가 어떤 집단인지 표시하는 정보를 개인별로 제공하였다. 또한 표지의 안내문에는 이 점추정 과제는 사람들의 지각경향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고 설명하고 이 연구는 이러한 지각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의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라고 소개하였다. 자신의 점추정 경향성은 지난 시간의 점추정 과제 결과에 따라 과다추정자와 과소추정자로 나는 것이며 6개 이상의 문항에서 실제보다 더 많게 추

정하였으면 과다추정자로 6개 이상의 문항에서 실제보다 적게 추정하였으면 과소추정자라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과다추정자 집단과 과소추정자 집단의 인상을 묻는 다양한 평가문항에 대하여 응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각 집단의 인상에 대한 평가 결과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도록 익명이 보장되며 연구에만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과제가 수록된 소책자는 각 집단별로 두 종류가 만들어져서 각각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들이 각 집단에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과제는 특성에 대한 각 집단 구성원 100명중 그러한 특성을 소지한 정도에 대한 평가, 분포만들기, 언어적 차별 과제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실험 조작의 타당성에 대한 문항을 실시하였다.

모든 과제가 끝난 후 실험 후 설명 과정을 거쳤다. 먼저 각 집단의 구분이 무선적이었음을 알리고 과다추정집단이나 과소추정집단이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설명하였다. 또한 인상 형성 연구라는 연구의 목적도 사실은 두 집단에 대한 선입견을 조사하는 것임을 알려주었고 피험자들의 실험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피험자들은 자신이 과다추정자라든가 과소추정자라는 정보를 믿었다고 보고하였다.

#### 측정도구

**백분율 과제.** 실험에 사용된 자료는 각 집단별로 일반적 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특성을 그 집단의 구성원들 100중 몇 명이 소지하고 있는지 묻는 과제였다. 고정관념적 전형성을 보려는 것이 아니어서 흔히 어떤 집단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6가지의 일반적 성격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긍정적 특성으로는 “온정적이다” “솔직하다” “성실하다”가 선정되었고 부정적 특성으로는 “까다롭다” “수동적이다” “게으르다”가 선정되었다. 동일한 특성에 대하여 내-외집단 모두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Park와 Judd(1990)의 연구에서는 이 과제는 집단간 차별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보다는 전형적 특성에서의 백분율에서 비전형적 특성의 백분율을 뺀 값을 집단에 대한 동질성 지각의 척도로 삼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최소 집단 구분 상황이어서 전형성과 비전형성이 없으므로 이 척도는 단순히 집단간 차별을 검증하는 척도로 사용되었다.

**분포 만들기 과제.** 각 집단의 다양성과 집중경향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Park와 Judd(1990)에서 사용했던 방법인 분포만들기 과제를 사용하였다. 크기가 다른 세 종류의 동그라미 스티커를 사용하여 분포를 만들도록 하였다. 각 특성별로 각 집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를 양극단에 놓고 그 사이를 9칸의 네모로 구분하여 1-9점 네모칸을 제시하고 그 네모 칸 위에 스티커를 붙여서 표현해보도록 하였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속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수의 네모칸에 가장 큰 동그라미 스티커를 붙이고 가장 적은 수의 사람들이 속했을 점수의 네모칸에 가장 작은 동그라미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였다. 네모칸 하나에 하나의 스티커만 붙이고 빈칸으로 남겨두면 그 집단에는 그러한 점수를 받을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스티커의 수는 사용하고 싶은 만큼 사용하도록 하였다. 분포 만들기 과제에서 사용한 형용사들은 긍정적 특성은 “사회적이다” “침착하다”이고 부정적 특성은 “이기적이다” “간사하다”였다. 각 과제마다 다른 형용사들을 사용한 이유는 이 실험이 인상형성에 대한 연구임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가능하면 다양한 특성들에 대해 평가해보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같은 특성에 대하여 내-외집단 모두에 대한 분포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 분포 만들기 과제에서 나타난 분포의 표준편차, 평균, 범위가 종속변인들로 사용되었다. 이 과제에서 산출된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다른 독립적 변인으로 집단간의 차별적 인식을 알아보는 척도이며, 이들은 간접적 집단간 차별 척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척도 중 평균과 표준 편차는 피험자의 집단에 대한 동질성 인식의 정도로 보고 집단에 대한 동질성 인식의 정도를 구분하는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언어적 차별 과제.** 이 과제를 위해서는 이전의 두 과제와는 별도로 8가지의 특성이 선정되었다. 사용된 특성은 가장 추상적 수준인 형용사로 표현하였을 때, 긍정적 특성으로는 “너그럽다” “성실하다” “이타적이다” “헌신적이다”였고, 부정적 특성으로는 “공격적이다” “비양심적이다” “비인간적이다” “부정직하다”였다. 각각의 특성을 나타내는 1장의 만화컷이 그려졌고 그 만화

가 얼마나 의미전달이 잘 되는지는 예비연구에서 별도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각 특성은 어떤 집단의 한 구성원의 행동으로 소개되었다. 각 특성이 어떤 집단의 구성원의 특성으로 소개되는지는 교차적(counterbalancing) 순서로 배정하였다. 즉 각 집단의 반정도가 각각 다른 집단과 특성 세트에 대하여 평정하였다. 각 그림은 4수준의 언어적 표현으로 설명되는데 1수준은 가장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행동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2수준은 약간 평가의 의미가 내포된 추상적 동사로 표현되며 3수준은 더 추상적이고 더 광범위한 동사로 표현되며 4수준은 완전히 추상적인 하나의 형용사로 묘사하였다. 예를 들어, 한 여자가 할머니의 짐을 들고 부축하며 길을 건너고 있는 장면에서 1수준은 “그녀는 할머니와 길을 건너고 있다” 2수준은 “그녀는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있다” 3수준은 “그녀는 거리에서 자원 봉사하고 있다” 4수준은 “그녀는 헌신적이다”로 제시되었다. 1수준은 4수준보다 훨씬 사건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용어로 기술하는 것이며 4수준은 아주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이 평가도구에 대한 예비조사에서 30명의 피험자간 일치도를 조사한 후 이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혼돈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설명문을 약간씩 수정하여 예비조사를 재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피험자들은 심리학과 학부 학생들로 Semin과 Fiedler(1988)의 분류 기준을 공부하였고 다양한 어휘들의 추상성의 정도를 추정하는 연습을 실시한 후 예비 조사에 응답하였다.

####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일차적으로 피험자 집단(과다-과소) × 표적집단(내-외집단) × 특성의 가치(긍정-부정)로 3원 변량분석(마지막 두변인은 반복측정)하였다. 이 분석에서 사용된 종속변인은 백분율, 분포의 평균, 분포의 표준 편차, 언어적 집단 차별의 변인들이었다. 일차적 분석 후 피험자 집단간 차이가 어떤 변인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이 변인을 제외하고 표적집단(내-외집단) × 특성의 가치(긍정-부정)에 대한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 계수를 산출하고 유의도 검증을 하였다. 또한 내

외집단의 동질성 지각과 집단간 평가와 언어적 차별의 관계에 대한 가설 검증을 위하여 집단의 분포 만들기 과제에서 계산된 평균과 표준편차를 가지고 1집단: 내외집단 간 높은 평균차, 낮은 표준편차집단, 2집단: 내외집단간 높은 평균차, 높은 표준편차집단, 3집단: 내외집단간 낮은 평균차, 낮은 표준편차집단, 4집단: 내외집단간 낮은 평균차, 높은 표준편차집단, 즉 4집단(2 평균차 × 2 표준편차)으로 분류하고 2원(표적 집단 × 특성의 가치)의 독립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분석은 2 × 2 × 2 × 2(평균차 × 표준편차 × 표적집단 × 특성의 가치) 4원 변량분석이었고 막 두 변인이 반복측정이었다. 이 분석에서는 백분율과 언어적 집단 차별 변인이 종속변인들이 되었다.

### 결 과

#### 조작 점검

먼저 실험 조작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한대로, 백분율과 분포구성 과제에서 제시된 단어들의 긍정성과 부정성에 대한 타당도 조사와 언어적 차별과제에서 주어진 진술문의 구성 - 추상성의 정도를 평가하는 예비조사를 따로 선정된 대상들에게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긍정적 형용사와 부정적 형용사간에는 그 긍정성 평가에서 유의하게 긍정적 형용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7.89, p<.0001$ ). 언어적 차별을 위한 진술문들의 최종 수정안에 대한 일치율은 1수준이 89%, 2수준이 87%, 3수준이 92%, 4수준이 9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 대체로 제시된 진술문들이 구성 - 추상성의 차원에서 타당하게 배열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피험자들의 실험조작의 효과에 대해서는 자신이 과다추정자 혹은 과소추정자라고 제시했을 때 얼마나 그 사실을 믿었는가로 평가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두 명의 피험자가 자신은 잘못 분류되었다고 주장하여서 두 피험자는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 집단간 차별에 대한 분석

다양한 종속 변인에서 집단간 차별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종속변인인 백분율, 분포 만들기에서의 평균과 표준편차, 만화의 그림에 대한 언어

적 진술에 대하여 2 × 2 × 2(과다 - 과소 추정 피험자 집단 × 내 - 외 표적 집단 × 특성의 가치)의 3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 두 변인은 반복측정변인이 된다. 그러나 과다 - 과소 추정자 집단간의 차이가 어떠한 분석에서도 유의하지 않으므로 이 연구의 주요 관심 변인이 아닌 과다 - 과소 추정 집단변인을 제외하고 이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원 분석한 결과에 대한 그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그 유의도가 표 1에 제시되어 있고 각 종속변인의 이원 상호작용에 대한 그래프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백분율.** 과다 - 과소 추정집단의 구성원 100명이 있다면 그 중 몇 명이 주어진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하는가 하는 문항에 대한 답을 이원변량 분석한 결과 내 - 외집단 간의 주효과( $F=38.54, p<.0001$ )와 긍정성 - 부정성 간의 주효과( $F=13.10, P<.0004$ )가 유의하였으며 내 - 외집단 × 긍정성 - 부정성간의 상호작용도 유의하였다( $F=7.79, p<.006$ ). 내집단의 평균이 외집단의 평균보다 더 높았다. 또한 긍정성의 평균이 부정성의 평균보다 높아서 긍정성의 소지율을 높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들 내 - 외집단의 주효과와 긍정성 - 부정성의 주효과 보다도 본 연구의 가설과 직접 연결되는 결과는

표 1. 내외집단과 긍정성 - 부정성의 상호작용에 대한 척도에서의 평균(표준 편차)과 평균 검증의 유의도

		내집단	외집단	집단차별
백분율	긍정적 특성	55.12(14.37)	46.06(14.68)	9.06**
	부정적 특성	48.51(13.27)	45.12(13.59)	-3.39*
평균	긍정적 특성	5.25(0.62)	5.13(0.63)	0.12
	부정적 특성	4.52(1.02)	4.86(1.00)	0.34**
표준 편차	긍정적 특성	1.54(0.57)	1.52(0.60)	0.02
	부정적 특성	1.45(0.61)	1.41(0.64)	0.04
언어적 차별	긍정적 특성	1.83(0.58)	1.87(0.74)	-0.04
	부정적 특성	1.82(0.62)	2.17(0.75)	0.35**

\*  $p <.05$ , \*\*  $p <.01$

- 1) 집단차별점수: 긍정성에서는 내집단 - 외집단, 부정성에서는 외집단 - 내집단
- 2) 언어적 차별: 점수가 높을수록 추상적 진술
- 3) 유의도(\*)는 상호작용에 대한 평균 검증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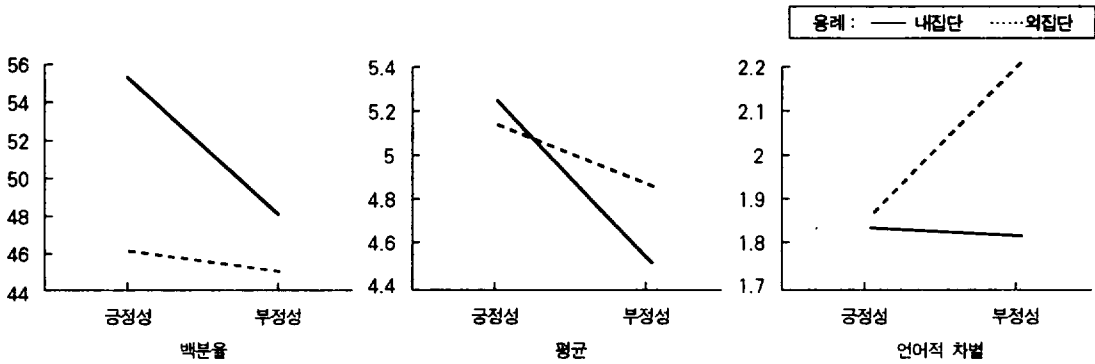


그림 1. 긍정성-부정성에서의 집단간 차별

이원 상호작용이었다. 상호작용에 대한 평균의 검증결과, 긍정성에서는 내집단과 외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F=41.31, p<.0001$ ) 부정성에서도 내집단과 외집단 간에 차이가 유의하였다( $F=5.49, p<.021$ ) (그림 1 참조). 그러나 긍정성에서의 내-외집단간 차별의 유의도가 부정성에서의 내외집단간 차별의 유의도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표 1에 의하면 부정성에서의 집단간 차별은 내집단에 유리한 것 보다 외집단에 유리한 역차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포만들기.** 주어진 특성에 대하여 과다추정자 집단과 과소추정자 집단의 분포를 동그라미 스티커로 만들어 보도록 한 과제에서의 평균에 대하여 이원변량분석한 결과 긍정성-부정성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F=42.29, p<.0001$ ). 또한 이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내외집단간과 긍정성-부정성간의 이원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F=11.56, p<.0009$ ).

이원 상호 작용에 대한 평균 검증의 결과 표 1에 제시된 대로 긍정성에서는 내집단과 외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부정성에서의 평균에서는 내집단과 외집단의 차이가  $F=7.22, P<.0082$ 로 유의하였다. 즉 긍정성에서는 내집단 선호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정성에서는 내집단 선호가 나타났다.

분포의 표준편차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긍정성-부정성간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F=6.24, p<.014$ ). 긍정적 특성에 대해서는 내외집단 모두를 더 다양하게 지각하여 표준편차가 더 크게 분포를 형성하고, 부정적

특성에서는 집단을 더 동질적으로 지각하여 표준편차를 더 적게 분포를 만들었다.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긍정성과 부정성에서 다르게 내외집단의 동질성을 지각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언어적 차별.** 만화의 내용에 대한 진술에서 구체성과 추상성의 정도에서 내외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 분석한 결과 긍정성-부정성의 주효과와 내-외집단의 주효과, 그리고 이원상호작용이 모두 유의하였다( $F=4.43, p<.0374; F=10.25, p<.0018; F=7.82, p<.006$ ). 부정적 특성보다 긍정적 특성을 더 추상적 일반적 용어로 진술하는 경향이 있고 외집단보다 내집단을 더 추상적 일반적 용어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원상호작용이 유의하므로 상호작용에 대한 평균 검증을 해본 결과, 긍정성에서는 내외집단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부정성에서는 내외집단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F=19.87, p<.0001$ ). 표 1에 이원 상호작용을 해석할 수 있는 평균이 제시되어 있다. 평균에 의하면 백분율과는 반대로 언어적 차별에서는 긍정적 특성에서 내외집단간 차별이 나타나지 않고 부정성에서만 내집단 선호의 차별이 나타났다. 즉 부정적 특성에 대하여 외집단을 내집단보다 더 일반적, 추상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었다.

**집단간 차별 변인들간의 관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다양한 집단간 차별을 나타내는 척도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호상관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백분율과 분포의 평균, 언어적 차별, 동질성 지각 척도인 표준편차간의 상관관계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인은 백분율과 평균 ( $r=.15$   $p<.001$ ), 평균과 표준편차와의 상관관계( $r=.14$ ,  $p<.002$ )만이  $p<.05$ 에서 유의하였다. 이들 변인들간의 상관도 유의하지만 아주 낮은 것으로 볼 때, 각 종속 변인들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집단의 동질성 지각과 집단간 차별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차(내집단의 평균에서 외집단의 평균을 뺀 값의 절대값을 사용함)와 표준편차와, 백분율과 언어적 진술에서의 집단간 차별과의 상관을 긍정성과 부정성 각각에 대하여 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관계수가  $p<.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평균차와 집단간 차별간의 상관관계는 부정성에서의 평균차와 긍정성에서의 내집단 언어적 차별과의 상관이 유의하였다( $r=.22$ ,  $p<.017$ ). 즉 부정성에서 두 집단의 평균차를 크다고 인식할수록 긍정성에서 내집단의 특징을 추상적으로 진술하였다(내집단을 위한 차별을 하였다). 또한 부정성에서의 평균차와 부정성에서의 백분율 집단간 차별의 상관이 거의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r=.18$ ,  $p<.0597$ ). 즉 부정성에서 두 집단의 평균차가 클수록 부정성에서 외집단의 백분율이 내집단의 백분율보다 더 크다고 지각하였다(외집단에 불리하게 차별하였다). 이 두가지 결과는 가설과 일치하게 내집단과 외집단을 더 차이가 있다고 볼수록 더 집단간 차별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들 변인간의 상관은 그 정도가 아주 낮은 뿐 아니라 그 수도 계산된 상관의 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므로 동질성 지각과 집단간 차별간에 직접적 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동질성과 집단간 차별의 관계.** 동질성 지각과 집단간 차별의 관계가 Jetten 등(1999)이 주장하는 것처럼 곡선적 관계에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작성된 분포에서 표준 편차와 평균차를 사용하여 이들 두 변인도 독립변인으로 추가한  $2 \times 2 \times 2 \times 2$ (높은 - 낮은 평균차  $\times$  높은 - 낮은 표준편차  $\times$  내 - 외집단  $\times$  긍정성 - 부정성)의 4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의 종속 변인은 두 가지 집단간 차별을 보여주는 백분율과 언어

적 차별이었다. 집단에 대한 표준편차를 중앙치에 의하여 높은 표준편차 집단과 낮은 표준편차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내집단의 평균에서 외집단의 평균을 뺀 값의 절대값에 대하여 중앙치로 높은 평균차 집단과 낮은 평균차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백분율에서는 추가된 독립 변인인 평균차와 표준 편차의 주효과, 2원, 4원 상호작용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높은 - 낮은 표준편차  $\times$  내 - 외집단  $\times$  긍정성 - 부정성의 3원 상호작용만 유의하였다( $F=5.02$ ,  $p<.027$ ). 3원 상호작용에 대한 각 변인별 평균과 표준 편차가 표 2에 제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평균들의 도표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이 상호작용 결과에 대한 평균 검증을 실시한 결과, 긍정성에서는 표준편차가 높은 집단이 내집단에 대하여 더 높게 백분율을 추정하는 반면( $F=3.08$   $p<.082$ ), 부정성에서는 표준편차가 높은 집단이 외집단에 대하여 더 높게 추정하는 정도가 거의 유의한 수준이었다( $F=2.47$ ,  $p<.119$ ). 즉 집단을 더 다양하게 보는(높은 표준편차) 집단이 긍정성에서는 내집단을 좋게 평가하고 부정성에서는 외집단을 더 나쁘게 평가하여, 긍정성 부정성 모두에서 집단간 차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만약 Jetten 등(1999)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4원 상호작용이 유의하여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평균차는 긍정성과 부정성에서 내 - 외집단에 대하여 다르게 백분율을 추정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언어적 차별 변인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표준편차 \* 내-외집단 \* 긍정성-부정성에 대한 백분율의 평균(표준편차)

		긍정성	부정성
표준 편차	낮음	내집단	53.24(14.48)
		외집단	48.43(15.18)
	높음	내집단	56.86(14.78)
		외집단	48.44(1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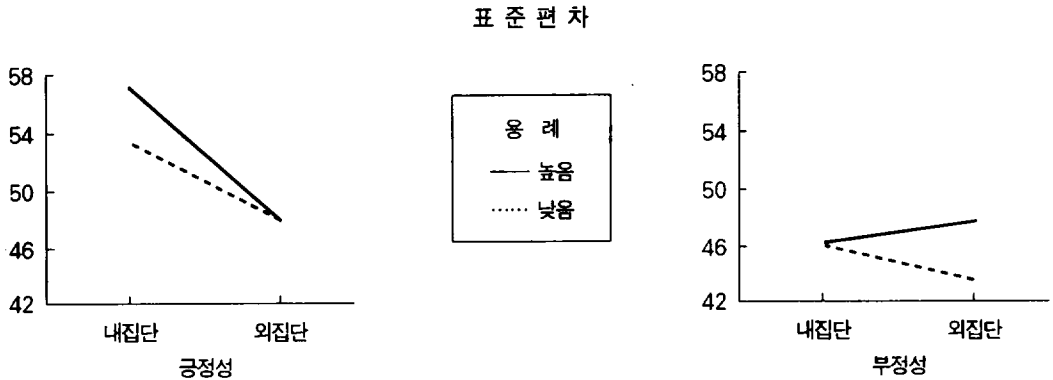


그림 2. 표준편차 \* 내-외집단 \* 긍정성-부정성의 상호작용

### 논 의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간략히 요약하면, 첫째, 사회적 규범 가설에서 처럼 부정성 불균형성이 일어난다면, 집단의 특성의 소지 백분율과 같은 직접적 차별에서는 긍정성에서는 내집단의 백분율을 외집단의 백분율보다 더 높게 추정하지만 부정성에서는 외집단의 백분율을 내집단의 백분율보다 더 높게 추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직접적 집단간 차별의 정도가 미약한 분포 구성과제에서는 평균과 같은 종속 변인에서는 긍정성에서는 내집단의 평균을 외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부정성에서는 외집단의 평균을 내집단의 평균보다 더 높게 분포를 구성할 것이며, 변산성(표준편차)에서도 긍정성에서는 내집단이 더 동질적인 것으로 부정성에서는 외집단을 더 동질적인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셋째, 집단간 차별이 전혀 외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 언어적 차별에서도 긍정성에서는 내집단을 더 추상적인 용어로 부정성에서는 외집단을 더 추상적인 용어로 진술할 것이다. 넷째, 집단간 차별을 측정하는 다양한 척도들간에 어느 정도 적선적 상관관이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집단의 동질성 지각의 정도와 집단간 차별간에 곡선적(도치된 U곡선)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가설들에 대하여 각각의 종속변인 별로 연구 결과들을 논의해보면, 첫째 백분율에서는 가설에서 예상했던 대로 집단간 차별이 나타났다. 그런데 상

호작용 결과의 해석에 의하면 긍정성에서만 차별이 일어나고 오히려 부정성에서는 미약하기는 하나 역차별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부정성 불균형성 가설이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긍정적 특성이 내집단에게 일어날 백분율을 높게 잡음으로써 “우리가 좋다. 그러나 그들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을 하는 집단간 차별을 보였다. 한편 부정성에서의 역차별은 긍정성에서 외집단을 불리하게 차별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인상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시도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가설인 분포의 평균과 언어적 차별 현상에 대한 분석에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평균과 언어적 차별 모두에서 이원 상호작용이 유의하였고 긍정성에서는 내-외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부정성에서는 내-외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평균에서는 내집단의 부정성의 평균이 외집단의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하여 외집단이 더 내집단보다 더 나쁘다라는 인식을 나타내 보여주었고, 언어적 진술에서는 내집단의 부정성은 더 구체적 용어로 표현하고 외집단의 부정성은 더 추상적 용어로 표현하였다. 즉 이 결과들은 “우리는 나쁘지 않지만 그들은 나쁘다”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이 두 가지 결과를 종합할 때 집단간 차별은 직접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서만 표현하므로 부정성 불균형성이 나타나지만 간접적이거나 차별이 좀 더 완곡할 경우, 부정성에서의 차별을 일으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

나 평균과 언어적 차별의 긍정성에서 집단간 차별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사람들은 차별을 하는 것을 그렇게 떳떳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으며, 어느 한 측면에서 차별을 하면 다른 측면에서는 형평을 맞추고자 하는 인식이 항상 공존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두 번째 가설 중 변산성에서의 집단간 차별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는 집단간 차별이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 연구들(Park & Judd, 1990; Ryan, Park, & Judd, 1995)에 의하면 집단 구분을 하면 내집단을 이질적으로 외집단을 동질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생기며 이러한 경향은 내집단 방어적 차별과는 독립적이라고 주장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동질성 지각에서 긍정성과 부정성을 합쳐서도 또 나누어서 볼 때도 내-외집단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긍정성에서는 더 이질적으로 부정성에서는 더 동질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만 나타났다. 긍정성과 부정성을 합친 평균으로 볼 때, 내집단을 외집단보다 조금 더 이질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다른 연구들에서 나타나던 집단간 동질성 지각에서의 차이가 본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여러가지 변인들이 혼합되어 있어서 해석이 간단하지는 않다. 우선 본 연구는 다른 연구와 달리 고정관념화된 기존의 집단을 사용하지 않았고 최소 집단 상황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집단의 동질성 지각의 차이를 내외집단간의 전형성에 대한 기대의 차이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최소 집단 상황이므로 집단 정체성이 아주 낮기 때문에 외집단 동질성 지각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집단간 차별을 측정하는 변인에서 차별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최소집단간 상황이라고 전혀 정체성이 없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른 하나의 해석 가능성은 내집단의 이질성 지각은 친숙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인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내집단을 더 이질적으로 보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Linville 등, 1996). 본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내집단에 대한 친숙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내집단의 구성원들이 더 다양하다고 지각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집단간 동질성 지각의 주요

변인으로 친숙성을 주장하는 Linville(1996) 등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지지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네번째, 본 연구에서 검증하려고 했던 가설들은 집단의 동질성 지각과 집단간 차별을 포함한 다양한 종속변인들 간의 관계였다. 백분율과 분포의 평균, 분포의 표준편차, 언어적 차별간에 직선적 관계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변인간의 상호 상관계수로 검증하고자 하였는데 변인들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별로 없었다. 백분율과 평균이 약간의 상관을 보이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 왜냐하면 이 두 변인은 집단을 차별하려는 경향성을 보는 유사한 변인이기 때문이다.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낮지만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은 평균과 표준편차가 같은 분포만들기 과제에서 산출된 점수들이기 때문이 아닌가 해석된다. 그러므로 평균과 표준 편차는 완전히 독립된 변인일 수 없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종속변인간에 낮은 상관을 보이는 것은 이들이 다른 어떤 관계에 있을 수 있음을 가정 해 볼 수 있다.

다섯째 가설은 종속변인들이 직선적 관계가 아니라면 이들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다. Jetten 등(1999)은 집단간 차이 지각과 집단 간 차별간에 곡선적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Jetten 등(1999)의 결과와 같은 곡선적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집단들의 변산성을 더 크게 보는 집단이 백분율을 추정하는 면에서 집단간 차별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집단이 모두 다양하여 집단간에 차이가 없다고 인식되면 자신의 집단 정체성에 위협이 일어나서 더 차별하고자 한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정체성 가설을 좀 더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집단의 동질성을 높고 낮은 두 차원에서만 분석된 것이므로 Jetten 등의 가설을 지지하거나 반박한다고 해석될 수는 없다. 특히 본 연구와 Jetten 등(1999)의 연구는 실험 설계상 큰 차이가 있다. Jetten 등은 집단의 동질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집단간의 평균차도 아주 높게 하거나 아주 낮게 하여 차이를 확실히 하였고 표준 편차도 높고 낮은 집단의 차이를 크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험의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지각하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중앙치를 중심으로 높고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척도가 기본적으로 아주 큰 변산성이나 평균차를 지각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자연스럽게 지각된 차이므로 인위적으로 조작된 차이와는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도 사분편차 점을 중심으로 양쪽 1/4에 해당하는 피험자들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양 척도에서 1/4에 속하는 피험자의 수가 너무 적어 분석이 신뢰롭지 못하여 중앙치를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Jetten 등의 연구와는 성격이 많이 다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집단 동질성과 집단간 차별 간에 도치된 U 곡선적 관계를 가진다는 가설은 좀 더 집단간 차이 지각을 크게 나타내도록 조작하거나, 척도를 개발하여 더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함에 있어서 몇가지 제한점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최소 집단 구분 상황이었으므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주로 수행했던 전형성에 대한 집단간 차별 연구와 상당히 다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동질성 지각의 측면에서 집단간 차별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기존의 연구들의 결과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둘째, 본 연구는 다양한 연구들에서 사용된 종속변인들을 그대로 사용하여 종속 변인들을 직접 비교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즉 백분율에서 나온 결과를 언어적 차별 결과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특히 백분율과 평균은 집단의 전체적 특성에 대한 집단간 차별을 측정하는 것이고 언어적 차별은 집단의 한 구성원의 일화에 대하여 진술하는 것이므로 동질적인 집단간 차별 성격을 가졌다고 가정할 수 없다.

셋째, 본 연구의 척도들은 그 성격이 각각 다를 뿐 아니라 과제마다 다른 형용사들을 사용하여 긍정성이나 부정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척도간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다. 동일한 부정성이라 하더라도 그 부정성의 정도가 아주 큰 어휘도 있는 반면 그 정도가 약한 어휘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평균과 언어적 차별에서 부정성 불균형성이 사라진 것이 이 척도가 간접적 차별 척도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정성 긍정성의 정도도 정확하게 측정하여 부정성의 정도와 직접적 간접적 차별의 관계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언어적 차별에 사용된 도구에 문제점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 도구는 Semin과 Fiedler(1988)가 사용한 도구를 우리말에 적용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한 것이었다. 원래 Semin과 Fiedler가 개발할 때의 연구에서는 언어적 추상성-구체성 차원의 정도는 이 특성들의 사회적 바람직성과는 무관하다고 정의되었다. 물론 해석 동사에서 약간의 긍정-부정의 의미 함축이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추상성이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다든지 혹은 구체성이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다는 증거는 이들의 어휘분류 체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으로 아주 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특성을 선정하여 언어적 차별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긍정성에서는 더 추상적으로 갈수록 좀 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부정성에서는 구체적으로 갈수록 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즉 "그녀는 할머니와 길을 건너고 있다"보다는 "그녀는 헌신적이다"가 훨씬 더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편견이 개입되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않았으므로 언어적 차별에서 나타난 집단간 차별이 단순한 추상성과 구체성 차원에서의 차별이라고만 해석할 수는 없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긍정성과 부정성이면서도 구체적 상황과 추상적 상황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적당한 어휘들이 거의 없는 것이 문제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언어적 차별의 결과가 완전히 의식되지 않은 차별 행동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일종의 완곡한 의식적 차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미비점들을 검토해 볼 때, 미래의 연구를 위해서 제안하고 싶은 점들은 우선 척도의 타당화, 객관화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또한 직접적, 간접적 집단간 차별을 좀 더 실험적으로 조작하여, 다른 변인이 혼입되지 않은 엄격한 실험 연구를 실시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종속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간 차이와 집단의 변산성을 피험자들이 지각한 정도가 아니라 실험 조작에 의하여 변화시킨 후 이들이 언어적 차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검증해보는 것도 필요하리라 본다. 선행



연구에서는 집단에 대한 평가 차원에서 차별만을 검증하였으므로 더 다양한 변인들로 확장시켜볼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집단이 소지한 특성의 백분율을 평가하거나, 특성의 평균을 추정하거나, 특성에 대한 언어적 진술에서 집단간 차별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은 직접적 차별 변인인 백분율에서는 부정성 불균형성이 일어나고 평균이나 언어적 차별에서는 부정성 불균형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집단간의 동질성 지각에서의 차별은 나타나지 않았고 동질성 지각과 집단간 차별 변인들간에 직선적 상관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의 동질성 지각과 집단간 차별간에 곡선적 관계가 있다는 것도 검증되지 못하였다. 다만 집단들의 변산성을 크게 지각하는 집단이 적게 지각하는 집단보다 더 집단간 차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 고 문 헌

- 이종숙(1996). 집단 구분 준거에 따른 집단간차별에 대한 연구: 외집단 동질성 지각을 중심으로 학생생활연구(덕성여자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12, 53-82.
- 이종숙(1997). 집단 특성의 긍정성과 부정성이 외집단 동질성에 미치는 영향. 학생생활연구(덕성여자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13, 1-28.
- Billig, M., & Tajfel, H.(1973). Social categorization and similarity in intergroup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 27-52.
- Blanz, M., Mummendey, A., & Otten, S.(1995). Positive-negative asymmetry in social discrimination: the impact of stimulus valence and size and status differentials on intergroup evaluation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4, 409-419.
- Brown, R., Tajfel, H., & Turner, C.(1980). Minimal group situations and intergroup discrimination: Comments on the paper by Aschenbrenner and Schaefe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 399-414.
- Franco F. M. & Maas, A.(1999). Intentional control over prejudice: when the choice of the measure matter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9, 469-477.
- Grieve, P. G., & Hogg, M. A.(1999). Subjective uncertainty and intergroup discrimination in the minimal group situ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926-940.
- Jetten, J., Spears, R., & Manstead, A. S. R.(1996). Intergroup norms and intergroup discrimination: distinctive self-categorization and social identity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1222-1233.
- Jetten, J., Spears, R., & Manstead, A. S. R.(1998). Defining dimensions of distinctiveness: group variability makes a difference to differenti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481-1492.
- Judd, C. M., & Park, B.(1988). Out-group homogeneity: Judgments of variability at the individual and group lev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778-788.
- Judd, C. M., Ryan, C. S., & Park, B.(1991). Accuracy in the judgment of in-group and out-group vari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366-379.
- Linville, P. W.(1982). The complexity-extremity effect and age-based stereoty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193-211.
- Linville, P. W., Fischer, G. W., & Salovey, P.(1989). Perceived distributions of the characteristics of in-group and out-group members: empirical evidence and a computer sim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65-188.
- Linville, P. W., Fischer, G. W., & Yoon, C.(1996). Perceived covariation among the features of ingroup and outgroup members: the outgroup covariation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 Social Psychology*, 70, 421-436.
- Maas, A., Milesi, A., Zabbini, S., & Stahlberg, D. (1995). Linguistic intergroup bias: differential expectancies or In-group prot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16-126.
- Maas, A., Salvi, D., Arcuri, L., & Semin, G.(1989). Language use in intergroup contexts: the linguistic intergroup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981-993.
- Park, B. & Judd, C. M.(1990). Measures and models of perceived group vari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73-191.
- Park, B., Ryan, C. S., & Judd, C. M.(1992). Role of meaningful subgroups in explaining differences in perceived variability of in-groups and out-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533-567.
- Reynolds, K. J., Turner, J. C., & Haslam, A.(2000). When are we better than them and they worse than us? : a close look at social discrimination in positive and negative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64-80.
- Semin, G. R. & Fiedler, K.(1988). The cognitive functions of linguistic categories in describing persons: social cognition and langua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558-568.
- Tajfel, H.(1978). Interindividual behavior and intergroup behavior. In H. Tajfel (Ed.)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pp.27-60). New York: Academic Press.
- Tajfel, H. & Turner, J. C.(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Worchel & W. G.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pp.7-24), Chicago-Nelson Hall.
- Wenzel, M. & Mummendey, A.(1996). A positive-negative asymmetry of social discrimination: a normative analysis of differential evaluations of in-group and out-group on positive and negative attribute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5, 493-507.

# Intergroup Discrimination in Evaluation, Group Homogeneity, and Linguistic Intergroup Description and the Relationship of Group Homogeneity and Intergroup Discrimination in a Minimal Group Situation

Jongsook Lee

Dept. of Psychology, Duks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intergroup discrimination in a minimal group situation in terms of the proportion of group members possessing positive and negative attributes, group means on those attributes, group variances on those attributes and linguistic intergroup biases and their relationship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intergroup discriminations in favor of in-group on group proportions of positive attributes, group means of negative attributes and linguistic biases on negative attributes, but they did not show intergroup discrimination on group homogeneity. Subjects estimated that a higher percent of in-group members possessed positive attributes, but a higher percent of out-group members did negative attributes. However, out-group means for negative attributes were estimated higher than in-group means. but not for positive attributes. In addition, subjects stated more abstractly of the in-group members' behaviors than out-group members' on negative attributes, but not on positive attributes. These results support the hypothesis based on the normative explanation of group discrimination that there is a positive-negative asymmetry in the percent (explicit measure of group discrimination), but not in the means and linguistic intergroup discrimination(implicit measures). However, the results did not support either linear or curvilinear relationships among the perception of group variability and intergroup discrimination.